

91년까지 豫報適中率85%로 중앙기상대 「기상의날」에 다짐

중앙기상대는 지난 3월23일 제29회 세계기상의날을 맞아 기념식을 거행하고 91년까지는 예보적중률을 85%로 향상시킬것을 다짐했다. 이를 위해 기상대는 외자1천7백50만 달러를 재원으로 최신 기상장비 55종, 632점을 도입, 濟州·釜山·江陵지역에 기상레이다를 설치하여 全國을 완전히 커버하는 레이다網을 구축키로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올해의 주제로 「항공업무와 기상」을 선정, 급증하는 항공기 운항의 안전확보를 위해 기상지원활동의 중요성을 강조. <3.23.中央日報>

10年内아프리카 코끼리 滅種위기

昨年7萬마리 희생·값올라 밀렵꾼몰려

지난해만해도 현재 남아있는 아프리카 코끼리(75만 마리 추산)의 10%가 밀렵꾼의 손에 희생됐다한다. 이같은 남획이 계속되면 10년내에 멸종위기에 처해질것으로 보고있다. 상아(象牙)의 값이 80年代初부터 1파운드당 25\$에서 80\$로 급등하자 밀렵꾼들이 때지어 아프리카로 몰려들어 自動小銃과 毒劇物사용등 갖가지 방법으로 코끼리를 남획하고 있다.

코끼리가 멸종되는 悲劇을 막기위해 아프리카 코끼리 보호협력단체(AECCG)가 歷史上 가장 획기적인 「코끼리보호운동」에 나섰다. 이 團體는 앞으로 4년동안 1천5백만 달러를 모금, 밀렵꾼으로부터 코끼리를 보호하고 象牙의 不法去來를 團束하는 「코끼리보호캠페인」에 投入할 예정. 그러나 象牙의 需要가 줄지않고 代替物質의 開發이 아쉬운 실정이다.

상아는 당구공에서부터 칼자루, 목걸이등 사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코끼리보호론자들의 애를 태우게 한다.

아프리카의 여러나라들은 理論上으로는 象牙를 코끼리로부터 잘라내는것을 嚴格히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협약에 의해 各國의 象牙輸出量도 割當돼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不法去來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상아시장서 去來되는 전체량의 90%정도가 不法採取된것이며 밀렵꾼의 밀반출도 용이하다. 소말리아를 비롯 一部國家들은 국가수입을 올리기위해 오히려 상아의 密去來를 장려하고 있기때문.

밀반출된 상아는 아시아시장으로 집결된다. 홍콩과 日本이 대표적인 상아시장이다. 홍콩은 상아세공으로

有名하며 홍콩서만든 제품의 약 30%는 美國으로 수출된다. 日本과 일부지역의 상아수입은 감소했으나 다른지역의 수요는 계속증가, 전체적인 수요는 줄지 않고있다. 케냐를 비롯, 코끼리멸종을 우려한 국가들은 밀렵꾼과의 戰爭을 宣言, 武裝巡察者에게 밀렵꾼에 대한 發砲命수를 내려 놓고있다.

그러나 自動小銃으로 무장된 밀렵꾼에게 오히려 경찰이 被殺되는 事例가 發生하기도해 코끼리 保護運動이 어려움을 실감케 한다. <3.3.서울신문>

무게 4kg 슈퍼級 도라지

野生도라지移植, 13年만에 수확

지난 1월25일 경기도 화성군 장안면 어음3리산34 金鍾乙씨(농·63)는 76년 인근 「지네산」에서 길이 10cm가량된 山도라지를 캐다 자신의 발에 심었다가 13년된 이날 수확했는데 무게 4kg. 둘레 40cm의 이 슈퍼급 도라지(사진)를 놓고 화제. 보통도라지는 심은 지 3~4년동안 10cm정도 자라면 성장을 멈추는것으로 알려졌기 때문. 金씨는 이 도라지를 약용으로 닭과 함께 고아먹을 것이라는 소문. <1.27.京仁日報>

